

## 제중원 뿌리논쟁의 경과와 쟁점

신규환

연세대학교 의사학과 및 의학사연구소

### I. 들어가며

### II. 뿌리논쟁의 경과

1. 제1기: 서울대병원의 뿌리 제기
2. 제2기: 대한의원과 제중원 기념하기
3. 제3기: 소유권과 운영권, 분리할 것인가 합칠 것인가?

### III. 뿌리논쟁의 쟁점

1. 제중원은 과연 누가 설립했는가?
2. 제중원은 국립병원이었나?
3. 알렌은 고용된 의사였나?
4. 제중원의 운영권은 누구에게 계승되었나?
5. 제중원은 대한의원으로 통합되었나?

### IV. 서울대병원이 답해야 할 질문들

### V. 나오며

### I. 들어가며

이른바 ‘제중원 뿌리논쟁’은 세브란스병원의 전신인 제중원이 서울대병원의 뿌리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논쟁이다. 이 논쟁은 제중원 창립 100주년(근대의학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된 바 있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 초 논쟁의 시작부터 2000년대 전반기가 제1기(1978-1998)에 해당되며, 2007년 대한의원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제중원 기념행사를 병행했던 시기가 제2기

(1998-2008)에 해당된다. 제3기(2008-현재)는 2008년 이후 현재까지라고 말할 수 있다. 제중원 뿌리논쟁에 대해서는 이미 연세의대 의사학과와 의학사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연세의사학』을 통해 꾸준히 정리해서 발표해왔다.<sup>1)</sup> 또 최근 출간된 『제중원 뿌리논쟁』(역사공간, 2015)은 그 동안의 경과와 핵심 쟁점, 서울대병원이 답해야 할 질문들을 잘 정리하고 있다.<sup>2)</sup>

본고의 목표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처음 논쟁이 어떻게 제기되었고, 각 시기별로 제기된 핵심적인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인지를 검토하되 논쟁을 일으킨 장본인들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논쟁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논쟁을 제기한 서울대병원의 내부사정, 의도, 전략, 방향성 등이 이미 논쟁과정에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분명히 인식하지 않는 한 제중원은 지구상의 여러 영토분쟁처럼 '분쟁지역'으로 오인될 여지가 적지 않다.

두 번째는 서울대병원이 광재원과 대한의원을 찬미하는 인식의 원천은 어디인지를 따져보는 일이다. 서울대병원이 단순히 병원 건물을 승계했다고 대한의원을 찬미하는 것은 아닐 터 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본고는 서울대병원이 왜 제중원에 집착하는지, 그런 주장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 II. 뿌리논쟁의 경과

### 1. 제1기: 서울대병원의 뿌리 제기

#### (1) 『한국의학사』와 김두종의 유산

한국의학사 연구에서 고전으로 여겨지는 김두종(1896-1988)의 『한국의학사』(1966)에서 제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1) 『연세의사학』 2-1, 제중원 역사 관련 특집호, (1998. 3); 『연세의사학』 10-1, 대한의원 역사관련 특집호, (2007. 12); 『연세의사학』 16-1, (2013. 6).

2) 여인석 · 신규환 지음, 『제중원 뿌리논쟁』(역사공간, 2015).

우리나라 서양의학은 왕립병원인 광혜원으로부터 시작되어 제중원을 거쳐 세브란스병원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 제중원은 1895년 7월 이후로 왕실의 경영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북장로교회에서는 이관된 후에도 선교회의 의료사업으로서 제중원의 명칭을 그대로 존속하여 오다가, 1904년 9월 23일에 현 남대문밖 도동에 세브란스병원이 되면서 그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 (...) 세브란스병원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처음으로 완비된 현대식 병원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은 (...) 우리나라의 서양의학의 발상지로서 서양문화를 직접으로 가져 오게 한 영예의 전통을 자랑할 수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에 전해 온 근세의학의 역사 중에 가장 광채 있는 페이지를 장식한 것도 세브란스병원이 거니와, 우리 의학의 발전적 과정에 있어서 민족적 고난과 호흡을 같이 하게 된 것도 세브란스 병원이다.<sup>3)</sup>

김두종은 같은 책에서 1885년 광혜원으로 시작된 제중원이 1894년에는 “왕실의 보호를 떠나 선교회의 사업으로서 완전히 재조직되었고(484쪽)”, “제중원의 명칭은 실질적으로 남대문 밖의 현기지에 옮겨가면서 세브란스병원으로 바뀌게 되었다(485쪽)”라고 말했다.

김두종은 일제시기 교토부립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만주의과대학에서 의학사로 의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1948.5-1949.11)을 지냈다. 그는 1946년부터 1960년까지 서울의대 의사학교실 주임교수로 재직하였고, 1960년부터는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등으로 재직했다. 또한 그는 1947년 조선의사학회와 1953년 대한의사학회의 창립을 주도하는 등 해방 이후 의학사분야의 연구를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4)</sup>

해방 이후 서울대병원장 등을 역임하고 의사학계의 권위자인 김두종이 제중원과 세브란스 병원의 승계를 공식화한 마당에 서울대병원 안팎에서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1954년 세브란스의과대학 개교 70주년을 맞아 『세브란쓰』지에 서울의대는 축하광고를 실는 등 서울의대나 서울대병원에서 제중원의 세브란스병원 승계에 대한 별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sup>5)</sup>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김두종이 『한국의학사』를 통해 제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승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던 반면, 서울대병원의 뿌리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광제원, 대한의원, 총독부의원의 계승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3) 김두종, 『한국의학사』(탐구당, 1966), 485-500.

4) 김두종의 학문과 일생에 대해서는 『애산학보』 38, (2012. 4) 김두종 특집호를 참고.

5) 『세브란쓰』, 1954년 5월 15일, 1.

앞의 세 병원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병원과의 승계는 언급하지 않은 점, 광제원과 대한의원의 침략성과 식민의료기관의 성격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점(김두종은 대한의원의 식민지성에 대해서 대한의원이 일본인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만을 지적했다) 등은 평소 민족주의 역사관을 강조했던 김두종의 학문세계와는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물론 김두종이 한국의학사의 1세대를 주도했다고는 하지만, 모든 방면에서 빈틈없는 역사연구를 해야 했다는 식으로 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의 역사에 대한 철저하지 못한 역사교육은 서울대병원이 광제원, 대한의원, 총독부의원,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의원 등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제중원과도 직접적인 계승관계를 가진다는 후학들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방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됐다.

##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 발간과 근대의학 100년

1970년대 들어서 서울의대 내부에서는 서울의대의 뿌리가 어디인지에 관한 때 아닌 논쟁이 일었다. 경성제대 의학부를 마지막으로 입학한 세대인 명주완, 권이혁, 백만기 교수 등이 주동이 되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를 간행하기로 하고, 1974년 10월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학교사 연구와 편찬에 필요한 자금은 권이혁 교수가 China Medical Board에서 끌어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1885-1978)』는 1978년 10월에 간행되었지만, 그 파장을 우려해서인지 책의 존재가 인지되기 시작한 3년 후에 외부에 배포되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중원이 서울대병원의 뿌리가 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면서 제중원 국립병원설을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백만기 교수는 간행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본 대학부속병원의 시초는 이보다 14년 앞선 1885년 3월에 제동에 설립된 왕립병원인 광혜원이라 하겠다. 재정난으로 한때 관제가 폐지되어 사립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운영케 하였으나 국립인 지금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광혜원에 비롯된다.<sup>6)</sup>

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 편찬위원회 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1885-1978)』(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978), 간행사.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복합된 원인으로 인해서 1894년, 설립된 지 겨우 9년 만에 왕립병원은 아깝게도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 뒤 제중원의 설비와 기구는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로 옮겨가고, 사설의료기관으로 재조직되었다.”라고 하여, 제중원이 서울대 병원의 뿌리가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제중원이 북장로교 선교병원으로 계승되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밖에 주목할 것은 광제원과 대한의원에 대한 서술인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는 광제원과 대한의원이 조선의 식민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식민지 의료기관이었다고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다만 그들 병원에 일본인들이 많아졌다는 식으로만 언급하고 있다. 광제원, 대한의원과 서울대병원의 관계를 애써 부정하려 하지는 않은 셈이다. 서울대병원이 광제원과 대한의원의 계승관계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일제시기 조선총독부의원이 자신들의 연혁을 소개할 때, 광제원으로부터 시작하여 대한의원을 거쳐 조선총독부의원이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7)</sup> 서울대병원은 자신들의 『서울대병원연보』의 연혁에서 광제원에서 시작하여 대한의원, 조선총독부의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으로 계승된다는 역사인식을 보여주었다.<sup>8)</sup>

1980년대에 들어서자 근대의학 100년을 앞둔 각종 행사가 많아졌고, 제중원의 승계문제를 둘러싼 각종 사건들이 빈발하기 시작했다. 제중원 뿌리논쟁을 둘러싸고 언론 등에서 논의되자, 은퇴한 김두종 교수가 신문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호한 입장에서 제중원-세브란스병원 승계를 지지하던 김두종 교수는 서울의대와의 관계 때문인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sup>9)</sup> 1981년 12월 24일자 기사에서 『중앙일보』가 김두종의 『한국의학사』를 근거로 연세의대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논쟁은 종식되는 듯 보였다.<sup>10)</sup>

### (3) 신용하 교수의 제중원 위탁경영설과 환수설 제기

1982년 서울의대는 국사편찬위원회에 광혜원이 서울대병원의 전신이 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국사편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회신을 했다.

7) 『朝鮮總督府醫院第13回年報』(1926), 沿革略 1.

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연보』 1, (1964), 3.

9) 여인석 · 신규환 지음, 『제중원 뿌리논쟁』(역사공간, 2015), 24-25.

10) 「광혜원은 우리병원의 전신: 서울대, 연대 양의학 뿌리논쟁」, 『중앙일보』, 1981년 12월 24일, 11.

### 서울대학교 병원의 질의에 대한 회신

1885년에 설립된 광혜원은 선교사 알렌을 의사로 임용하여 1894년까지 직영하다가 경영상의 곤란으로 선교사 에비슨에게 위탁경영한 바 1905년에 환수하였습니다. 한편 제중원과는 별도로 1899년 내부병원(광제원)이 설립되어 대한의원을 거쳐 귀병원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광혜원(제중원)이 내부병원(광제원)으로 직접 승계되지는 않았으나 성격상 귀병원이 근대적 국립의료기관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1982년 5월 20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sup>11)</sup>

국사편찬위원회가 개별 기관의 역사에 대해 기존 학계의 인식을 부정하고 새로운 설을 제기하면서까지 서울대병원에 회신하는 성의를 보였는지 그 자세한 경위는 현재로선 파악하기 어렵다. 국사편찬위원회의 문건은 제중원과 광제원의 승계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위탁경영설과 환수설을 갑작스럽게 제기하였다. 이후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사회학과 신용하 교수 가 위탁경영설과 환수설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아 국사편찬위원회와 모종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추정만 해 볼 수 있다.

비슷한 시기 서울의대 백만기 교수는 규장각 관리실장으로 있던 서울대 사회학과 신용하 교수에게 제중원 관련 자료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는데, 1982년 6월 신용하 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중원 반환에 관한 약정서」 등을 근거로 제중원은 한 번도 사립화된 적이 없으며, 제중원은 광제원으로 통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신용하 교수 역시 위탁경영설과 환수설을 주장했는데,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중원과 광제원의 계승관계를 부정했던 것과 달리, 그는 제중원은 환수되어 광제원과 대한의원으로 계승되었다고 주장했다.<sup>12)</sup>

#### (4) 정구충 박사 원고 변조 사건

의학계의 원로인 정구충 박사(당시 89세)는 『대한의학협회지』 1984년 10월호에 「한국의

11) 편사1017-216호, 「서울대병원의 질의에 대한 회신」(1982. 5. 20).

12) 「한국 최초의 의료기관, 제중원은 사립화되지 않았다」, 『보건신보』, 1982년 6월 7일, 5.

학 100년』에 관한 시론을 게재했는데, 협회지의 편집책임자였던 서울의대 정신과 이정균 교수가 자교의 백만기 교수 등의 자문을 받아 임의로 원고내용을 변조하였다. 이 사건은 국립 대 교수가 의학계 원로의 글을 허락없이 무단 변조한 사건으로, 당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에 보도되는 등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켰다. 주요 변조내용을 살펴보면, “제중원은 사립으로 미국선교회에서 인수하였다”가 “미국선교회로 하여금 위탁경영케 하고”로 바뀌었고, “제중원을 인수받은 에비슨 박사는 세브란스씨의 기탁으로 도동에다 병원과 학교를 신축하여 세브란스병원이라 개명하였고”는 ‘제중원을 인수받은’과 ‘개명하였고’를 모두 빼버렸다. 또한 원고에도 없던 “제중원은 1905년 정부에서 환수하였다”가 첨가되었다. 또한 왕립병원 이란 표현은 모두 국립병원으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세브란스병원과 제중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서울대병원이 제중원을 계승한 것처럼 서술하였다. 이 사건은 원래 원고를 『대한의학협회지』 12월호에 정정 기사를 내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이후 서울대병원이 제중원 국립병원설, 위탁경영설, 환수설 등을 본격적으로 주장하는 신호탄이 되었다.<sup>13)</sup>

### (5) 1995년 서울의대 뿌리찾기

198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 동안은 새로운 문제의 제기가 없었다. 1993년 5월에 발행된 『서울대학교병원사』(편찬위원장 백만기)에서는 기존에 제기된 제중원 국립병원설, 위탁경영 설, 환수설 등을 그대로 반복하였다.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서울대학교병원사』는 이전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와 마찬가지로 광제원과 대한의원의 식민지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sup>14)</sup>

1995년 10월, 서울의대는 「종두의양성소 규정」 공포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 우리나라 근대의학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뿌리를 찾아서”을 개최하며 서울의대 뿌리찾기에 나섰다. 여기에서 신용하 교수는 「광혜원과 근대의료의 출발」이라는 글에서 제중원의 광제원 통합을 주장하며, 이 사실을 입증하는 사료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1905년 4월 10일 선교본부와 조선정부는 「제중원 건물 반환에 관한 약정서」를 통해 30,289원 90전을 지불하기로 계약했고, 1년 후인 1906년 5월 30일 『고종 실록』에는 제중원 찬성금 3,000원과 광제원 확장비 27,805원의 지출(합계 30,805원)을 승

13) 여인석 · 신규환 저음, 『제중원 뿌리는쟁』(역사공간, 2015), 32-35.

14)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사』(서울대학교병원, 1993).

인하는 기사가 실려있다고 주장했다. 1년 사이에 발생한 차액 500원은 인수할 때 생기는 부대비용까지를 계산한 것으로 오히려 정확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논리로 신용하 교수는 제중원은 사립병원으로 운영된 적이 없으며, 광제원에 흡수되어 대한의원으로 계승되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sup>15)</sup>

#### (6) 1997년 서울의대의 입장변화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와 『서울대학교병원사』 등의 편찬을 주도했던 것은 서울의대 백만기 교수였다. 그는 서울의대의 시초로 광혜원(제중원)을 지목하고, 제중원 국립병원설, 위탁경영설, 환수설을 주도했던 장본인이었다. 그런 그가 1997년 10월 「병원연혁에 관한 좌담: 국가중앙병원의 21세기와 뿌리 찾기」에서 서울의대의 뿌리에 대한 입장은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음을 고백하였다.

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를 만들면서 간행사를 쓸 때 처음에는 광혜원은 두 병원 모두의 것 이 아니거나 달리 보면 두 병원 모두의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국립서울대학교병원과 사학인 세브란스병원의 뿌리로 한국의 관학과 시학의 양대산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광혜원 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간행사를 보신 어떤 국사학자께서 광혜원은 우리 병원 것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시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주장을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광혜원을 반드시 우리 대학 병원의 뿌리로 삼아야겠다는 주장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할 것이란 점 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sup>16)</sup>

신용하 교수는 이 좌담회에서 제중원 환수설 및 광제원 통합설을 또다시 주장했다. 제중원 은 사립화 된 적이 없이 광제원으로 흡수, 통합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 교수는 “에비슨이 옮겨가게 된 새 서양병원은 공식 이름은 세브란스병원이었지만, 제중원에 있던 서양의사들이 모두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국민들은 제중원이라고 관습적으로 불렀고, 관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제중원의 시설은 광제원으로 통합되고, 대한의원으로 통합되

15) 신용하, 「광혜원과 근대의료의 출발」, 『종두의양성소 규정공포100주년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995.

16) 「병원연혁에 관한 좌담: 국가중앙병원의 21세기와 뿌리 찾기」, 『서울대학교 병원보』, 제221호, 1997년 10 월 1일.

었으니, 제중원이 서울대병원으로 계승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말하자면 신 교수는 제중원 환수설 및 광제원 통합설 등 이전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지만, 제중원의 계승문제에 대해서는 제중원 의료진과 의료시설은 세브란스병원으로 계승되고, 제중원 건물과 일부 시설은 서울대병원으로 계승되어 “두 병원이 형제처럼 광혜원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는 다소 생뚱맞은 화해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신 교수는 서울대병원은 자신들의 기원으로 광혜원 또는 광제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역시 제중원을 서울의대와 연세의대의 기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서울의대 교수들의 갑작스런 화해 제스처와도 일맥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 (7) 위탁경영설과 환수설의 폐기

1998년 3월 23일 연세의대 의사학과에 의해 1905년에서 1906년 사이의 주본존안 내용이 공개되어 신용하 교수와 서울의대가 주장했던 소위 ‘조선정부의 위탁경영설’과 ‘조선정부의 제중원 환수설’이 그 근거를 잃게 되었다.<sup>17)</sup>

제중원 반환 보상금은 1905년 4월 3일 『구한국관보』에 게재되었고, 4월 10일 「토지매매 계약서」와 「병원건물대금접수관계서」에서 곧바로 지불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제중원 보상금은 1년 후에 다른 명목(제중원 찬성금과 확장비)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제중원 찬성금은 제중원 보상과 무관하게 세브란스병원을 돋기 위해 책정된 찬조금이었다는 것이 주본 제230호를 통해 확인되었다.<sup>18)</sup> 27,805원 48전의 광제원 확장비 역시 대부분 인건비와 약품구입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건물수리비는 400원으로 광제원 확장비가 건물확장 비용이 아니라 광제원 추가 운영비라는 사실도 주본 제232호를 통해 밝혀졌다.<sup>19)</sup>

이후 서울대병원은 제중원 환수설, 광제원 통합설, 위탁경영설 등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기존 제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계승관계가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모두 제중원을 계승했다는 입장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위탁경영설과 환수설 등이 그 근거를 잃어버린 후에도, 서울대병원은 제중원 국립병원설, 알렌 고

17) 「광혜원은 분명 연세의 효시 - 사실 입증할 주본존안 발견」, 『연세춘추』, 1998년 3월 30일.

18) 『奏本存案』, 규장각 17704.

19) 『奏本存案』, 규장각 17704.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형우 · 여인석, 「한국근대의학 도입사의 생점」, 『연세의사학』 2-1, (1998. 3), 102-114를 참고.

용설, 제중원의 윤영권과 소유권 분리주장 등 기존 주장을 약간씩 변형시켜, 서울대병원의 제중원 승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제2기: 대한의원과 제중원 기념하기

### (1) 국가중앙병원 논리의 재점화

제2기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인데, 이 시기의 핵심적인 논쟁은 2005년 제중원 100주년 기념행사와 2007년 대한의원 100주년 기념행사를 둘러싸고 발생했다. 2005년은 세브란스병원이 새병원을 준공하고 연세의료원이 12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하던 시기였다. 2005년 4월 1일, 서울대병원이 개최한 「서울대학교 병원역사 심포지엄」에서 3명이 발표했는데, 김희중 의학박물관장이 느닷없이 “서울대병원이 120년 전통을 찾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고 언급했다. 얼마 후인 2005년 7월 서울대병원은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 역사가 3명을 고용하여 ‘병원사연구실’을 개소하였으며, 「대한의원 설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공표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서울대병원은 제중원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병원사연구실은 대한의원 기념사업의 진행을 위해 연세의대 의사학과에 해외답사 및 해외학자 초청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06년 3월, 서울대병원은 대한의원 99주년 사업을 하면서 ‘대한의원 100주년, 제중원 122주년 기념사업추진단’이 발족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이 추진단의 『대한의원 99주년 심포지엄』 자료집에 따르면, 새로 개설한 ‘병원사연구실’의 과제 중의 하나로 “서울대학교병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해 온 역사를 정당하게 평가한다”고 표명하고 있다.<sup>20)</sup>

2006년 서울대병원의 대한의원 기념행사에 제중원이 은근 슬쩍 포함되었고, 서울대병원은 제중원과 서울대병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가중앙병원’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국가중앙병원’의 논리는 1997년 10월 「병원연혁에 관한 좌담: 국가중앙병원의 21세기와 뿌리 찾기」에서 서울대병원의 정체성을 논의하면서 제시된 것이었다. 국가중앙병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규정은 없었다. 당시에는 “근대의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각 시대의 국가중앙병원이 수행해 온 역할을 살펴보는 가운데 서울대학병원의 역사적 모습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20) 대한의원 100주년, 제중원 122주년 기념사업추진단, 『대한의원 99주년 심포지엄』(2006. 3. 15), 11

서울대병원의 국가중앙병원 논의는 2003년 2월, 보건복지부가 국립의료원을 중심으로 국가중앙의료원을 재편하고 서울대병원을 교육부 소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전하겠다는 논의를 발표하면서 위기를 맞는다. 서울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이관을 하지 않는 대신 국가중앙병원은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2007년 서울대병원 노조가 ‘국가중앙병원의 정점’인 대한의원 100주년 기념행사에 반발하면서 국가중앙병원 논리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대병원은 공식 누리집이나 인터뷰 등에서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라는 용어를 상용어처럼 쓰고 있는 실정이다.

## (2) 대한의원의 미화

대한의원의 본질은 이토 히로부미가 식민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식민의료기관이었는데도, 서울대병원은 대한의원의 식민성을 감추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하였다. 대한의원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서울대병원 내부에서도 나왔다. 서울대병원 자신이 자문기구로 구성한 병원연구포럼은 대한의원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보고서가 발표되는 세미나를 취소시키고 각종 행사를 강행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도둑질을 한 아버지라도 제사는 지내야 한다. 다만 축하 개념의 기념이 아닌 단순한 기억 의미의 기념일뿐이다.”라고 말했다.<sup>21)</sup> 이 말은 (조선을) 도둑질한 일본이 자신들의 ‘아버지’라는 서울대병원 측의 역사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 3. 제3기: 소유권과 운영권, 분리할 것인가 합칠 것인가?

2007년 서울대병원의 대한의원 100주년 기념 행사 이후 제중원 뿌리논쟁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다. 2010년 초 SBS 드라마 제중원의 방영을 계기로, 제중원과 관련된 소설, 전기, 연구서 등 다양한 서적이 봇물을 이뤘다. 연세의대 박형우·박윤재 교수는 『프레시안』에 「의학사산책」을 연재했고, 그 결과물을 『사람을 구하는 집, 제중원』(사이언스북스, 2010)이라는 책으로 출간했다. 이에 대응하여 서울대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김상태 교수가 2월말에 『제중원 이야기』(웅진지식하우스, 2010)를 출간했다. 서울의대 의사학교실의

21) 「일제기념 서울대병원, 도둑질한 아버지라도 제사는 지낸다?」, 『노컷뉴스』, 2007년 2월 28일.

황상익 교수는 2010년 3월부터 『프레시안』에 「근대의료의 풍경」을 86회에 걸쳐 연재했다. 그 결과물은 『근대의료의 풍경』(푸른역사, 2013)라는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평과 반론을 통한 제중원 뿌리논쟁이 이어졌고, 최근에는 『한국일보』, 『조선일보』 등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sup>22)</sup>

제3기 제중원 뿌리논쟁이 이전과 달라진 점은 그 동안 뿌리논쟁에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던 서울의대 의사학교실의 황상익 교수가 이 논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여 새로운 대립각을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황 교수는 서울대병원이 식민지 의료기관인 대한의원을 친양하는 것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뿌리논쟁에 새로운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황 교수는 대한의원에 관한 논점을 제외하면, 기존 서울대병원의 입장에 동조할 뿐만 아니라 제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뿌리논쟁과 관련된 황 교수의 몇 가지 주장은 다음과 같다.<sup>23)</sup>

- ① 제중원은 조선 최초의 근대식 국립병원이다.
- ② 제중원과 광제원은 별개의 국립병원이었을 뿐이다. 이후의 국립병원과 제중원의 승계를 말하기 어렵다.
- ③ 제중원의 건물, 대지와 분리된 별도의 운영권이라는 것은 없었다.

첫째, 황 교수는 기존 서울대병원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시종일관 제중원을 국립병원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례가 등장하면 잘못된 문서라거나 사료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폄하한다. 예를 들어, 1906년 5월 대한제국 정부는 주본 제230호에서 세브란스병원, 즉 새로 지은 제중원에 지원금을 보내자는 「제중원 찬성금에 관한 청의서」를 작성하였다.

---

22) 여인석·박윤재, 「황상익의 ‘근대의료의 풍경’을 읽고」, 『프레시안』, 2011년 1월 14일; 황상익, 「‘근대의료의 풍경’ 비평에 대한 답글」, 『프레시안』, 2011년 1월 31일; 여인석·신규환, 「빈곤 속의 역사학과 역사학의 빈곤」, 『프레시안』, 2013년 5월 31일; 황상익, 「역사학자의 소임은 무엇인가?」, 『프레시안』, 2013년 7월 5일; 정종훈, 「서울대병원의 역사왜곡」, 『한국일보』, 2015년 2월 9일, 29; 김상태, 「제중원의 진실: 연세대 정종훈 교수에 답한다」, 『한국일보』, 2015년 2월 15일; 「우리가 제중원 嫡子,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신경전」, 『조선일보』, 2015년 4월 3일.

23) 황상익, 『근대의료의 풍경』(푸른역사, 2013), 제6장 참고.

제중원의 설치가 이미 수십 년이 지났는데, 백성의 생명을 구제하는 데 열심입니다. 서울과 시골에서 민생의 병이 있으나 의지할 데가 없는 자와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자가 제중원에 부축되어 이르면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죽다가 살아나고 위험한 지경에서 목숨을 부지하게 된 자를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인데, 아직 한 마디 치하하는 말이 없고 한 푼 도와주지 못했으니 이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중원을 돋는 돈을 보내자는 의견이 이미 정부의 방침인 바, 결코 보류할 수 없어 이에 송부하니 잘 검토한 다음 찬성금 3000환을 예산 외에서 지출해 제중원에 보내서 그 널리 시술하는 아름다운 뜻을 길이 장려함이 필요합니다. (1906년 5월 22일자)<sup>24)</sup>

위 내용은 1906년 6월 4일자 『구한국관보』에 최종적으로 게재되었다. 이러한 정부측 사료는 대한제국이 세브란스병원을 제중원의 연속적인 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황 교수는 이 문서의 내용에서 조선정부가 한 푼 도와준 바 없다는 얘기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문서이므로 사료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의서(請議書)」나 『관보(官報)』 같은 공식적인 문서의 가치를 부정하는 역사연구는 자의적인 주장만을 내세우게 된다.

둘째, 황 교수가 서울대병원의 주장과 다른 점은 제중원, 광제원, 대한의원 등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각각의 병원은 법률적, 제도적 승계를 보여주는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는 광제원이 제중원을 계승했다는 서울대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광제원이 일제에 의해 식민의료기관으로 변모하였으며, 대한의원이 일제의 식민의료기관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는 제중원이 서울대병원이나 연세의료원 어느 쪽으로도 계승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셋째, 제중원이 세브란스병원으로 계승되지 않았다는 황 교수의 주장은 운영권과 소유권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확당한 논리에 근거한다. 황 교수는 1894년 제중원 운영권이 에비슨에게, 궁극적으로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 이관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제중원의 운영권은 1894년 9월 에비슨(사실상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게 이관되었다가 1905년 4월에 건물 및 대지와 함께 환수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제중원의 건물, 대지와 분리된 별도의 운영권이라는 것은 없었다”라며, 선교부에서 제중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선교부의 운영권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논리로 그는 제중원의 세브란스병원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운영권이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과 직결되어 있

24) 奏本 第230號, 「內部所管濟衆院贊成金 算外支出請議書」, 1906년 5월 22일.

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역사상 병원의 운영권과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는 사례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건물주와 토지 소유주만이 병원의 운영권을 가진다는 주장은 과연에 불과하다. 병원의 운영권이 반드시 소유권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떤 이론에 따른 것인지 황 교수는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처럼 제3기 뿌리논쟁에는 새로운 논리를 앞세운 독특한 해석이 등장하고 있는데, 논리만 앞세워 역사적 사실과 무관한 주의주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III. 뿌리논쟁의 쟁점

뿌리논쟁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병원 홈페이지와 김상태의 『제중원 이야기』(2010) 등의 내용 등에 근거하여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 1. 제중원은 과연 누가 설립했는가?

서울대병원이 제중원이 국립병원이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미사여구 중의 하나는 조선정부가 강력한 근대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제중원은 그러한 산물 중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한국근대사를 타율의 역사가 아닌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잘 아는 것처럼, 조선정부는 서구식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혜민서와 활인서를 폐지(1882년)한 것이다.<sup>25)</sup> 조선후기 사설 약국방의 발전으로 정부의 삼의사 체제는 이미 무너져가는 시점이었다.<sup>25)</sup> 1885년 즈음 조선정부는 서양의학에 대한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조야에서 서양의학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담론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과 실체화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실제로 1898년 7월 만민공동회가 의학교와 병원 설립을 위한 대대적인 운동을 벌였고, 학부에 이를 정식 견의한 적도 있다. 이에

25) 김성수, 「조선후기 사적의료의 성장과 의업에 대한 인식 전환」, 『의사학』 18-1, (2009. 6); 신동원, 『조선의 약생활사: 환자를 중심으로 본 의료 2000년』(들녘, 2014), 특히 제3부 조선시대 의약생활의 대변화, 제2장과 제5장을 참고.

대한 학부의 대답은 분명했다.

경복자는 제중 위생이 시무에 반드시 중요함을 일찍 알았으되 다만 학교 힘쓰는 것이 초창하고 경비가 군졸하여 각종 학교를 예산에 넣지 못한 고로 의술 학교도 지금 겨를은 못하였으니 이렇게 아시고 아직 후일을 기다리심을 요구하노라.<sup>26)</sup>

조선정부는 의학교와 병원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달라는 것이었다. 조야에서 서양의학의 필요성이 본격 제기된 것은 1899년이었다. 게다가 대한제국 정부는 구본신참의 정체성을 가지고 동서의학을 병용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1885년 조선정부가 근대국가 건설을 위해 서양식 병원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고 하는 주장은 과장된 주장이다. 제중원의 역사에서 알렌의 역할을 지우기 위한 서울대병원의 꼼수에 불과하다. 1885년 제중원의 건립에는 갑신정변과 민영의의 치료라는 우연적 요소가 많이 작용했고,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중요하게 작동했다. 「병원건설안」을 제안한 것도 알렌이고, 병원의 운영을 주도한 것도 알렌이었다. 조선정부는 알렌의 제안으로 호의적으로 대응한 것뿐이었다. 조선정부가 육영공원이나 동문학 운영시에 외국인을 고용한 것과는 달리, 제중원 의료진에 대해서는 전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조선정부가 외아문을 통해 제중원을 관리한 것이나, 의료선교사들의 독자적 운영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1894년에는 운영권을 전권 이양하게 된 것도 조선정부가 처음부터 전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제중원만의 독특한 상황이 존재했다.

## 2. 제중원은 국립병원이었나?

서울대병원은 제중원이 정부병원이고, 정부병원은 국립병원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즉 정부병원은 국립병원이라는 주장인데, 이것은 명백한 왜곡이고 비약이다. 정부라는 용어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국립'이라는 용어는 해방 이후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당시 제중원 설립 이후 제중원을 지칭할 때,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정부병원(government

---

26) 『독립신문』, 1898년 7월 25일.

hospital), 왕립병원(royal hospital), 공립병원(public hospital) 등이 그것이다. 당시 조선에서 선교는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교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선교사 신분을 대놓고 드러낼 수는 없었으며, 병원부지를 매입하거나 병원을 독자적으로 건립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따라서 의료선교사들은 제중원에 대해서 선교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고, 정부병원이나 왕립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1887년 「제중원 규칙」 제정 당시 규칙 제정을 도왔던 일본인 가이세 도시유키(海瀬敏行)는 제중원을 공립의원으로 지칭하고 있다. 일본에서 공립의원이란 정부가 재정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비영리병원을 뜻한다. 제중원이 일본의 공립의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본인의 시각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지만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공적 기관이 운영하는 비영리병원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공립의원과 정부병원은 정부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지만,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과 공적 기관이 운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더욱이 공립의원이 국립병원과 같다거나 정부병원이 국립병원과 같은 것은 아니다. 정부나 왕립이라는 용어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반면, 공립이라는 용어는 한말과 일제시기에 사용되었고, 관립은 일제시기 이후 사용되었으며, 국립이라는 용어는 해방 이후 사용되었다. 이런 개념들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역사적 의미를 잃게 된다.

### 3. 알렌은 고용된 의사였나?

서울대병원은 알렌 등 의료선교사들이 조선정부에 의해 고용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병원건설안」을 제안한 것이 알렌이고, 알렌은 「병원건설안」에서 알렌 스스로 조선정부로 급여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의사 1명을 더 초청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런 알렌에게 조선정부가 계약관계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런 계약서가 존재할 리 없다. 알렌이 조선정부로부터 받은 50원의 신수비가 월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신수비는 육영공원 교사의 1/3도 되지 않는데, 월급이 아니라 일종의 사례금에 해당된다. 알렌 스스로도 조선정부로부터 받은 신수비는 제중원 의사로서의 월급이 아니라 어의로서 비정기적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일종의 사례비라고 밝힌 바 있다.

#### 4. 제중원의 운영권은 누구에게 계승되었나?

서울대병원은 제중원의 운영권과 소유권을 분리하여 조선정부가 운영권은 선교부에 넘겼지만, 소유권은 조선정부가 환수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곧 제중원이 운영권을 중심으로 세브란스병원으로 계승되었지만, 소유권은 광제원으로 계승되어 서울대병원에 계승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04년 세브란스병원 설립 이후, 제중원은 조선정부에 환수되었다. 그러나 제중원의 환수에 적극 나선 것은 일본이었고, 일본은 환수된 제중원을 미국인 외교고문 스티븐슨의 사택으로 썼다. 제중원의 소유권이 광제원으로 합병되었다는 것은 거짓이다.

최근 서울대 의대의 황상익 교수는 제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연계성을 부정하기 위해 “제중원의 건물, 대지와 분리된 별도의 운영권이라는 것은 없었다.”라는 독특한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런 논리라면,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은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청와대라는 대지와 건물 위에 존재한 적이 없는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으로의 연속성과 정통성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이 된다. 또한 임대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소유권과 운영권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할 뿐이다.

#### 5. 제중원은 대한의원으로 통합되었나?

서울대병원은 제중원이 광제원을 거쳐 대한의원으로 통합되었으며, 대한의원이 서울대병원의 전신이라고 주장한다. 대한의원이 의학교부속병원, 광제원, 대한적십자병원 등 세 병원을 통합하여 설립된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세 병원의 통합과 제중원은 무관하며, 더구나 제중원과 대한의원은 아무런 선후관계가 없다. 서울대병원이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승관계를 설정하면 필연적으로 역사적 왜곡이 발생한다.

대한제국은 동서의학을 병용하고자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대한제국시기 설립한 세 병원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내부병원으로 출범한 광제원은 한방병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1906년 일제에 의해 서양의학 병원으로 강제 개편된다. 이런 광제원이 선교병원의 정체성을 가진 제중원과 일체의 계승관계를 가질 수 없음은 분명하다. 더군다나 광제원이 제중원의 건물과 부지를 사용했다거나 제중원 운영의 경험을 가졌다는 거짓말을 반

복하고 있다. 따라서 제중원(선교병원)-광제원(전기 한방병원, 후기 일제 식민통치기관)-대한의원(일제 식민통치기관)이 같은 뿌리로서 연속성을 가졌다는 주장은 자신들의 뿌리를 입맛대로 꾸며낸 것에 불과하며, 명백한 역사적 왜곡이다.

#### IV. 서울대병원이 답해야 할 질문들

서울대병원은 제중원과 연결시키기 위한 억지를 부릴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인가에 관한 것이다. 제1차 뿌리논쟁이 마무리되어가던 1997년 9월 30일 서울대병원은 「병원연혁에 관한 좌담회」에서 21세기의 서울대병원의 위상을 논의하면서 ‘국가중앙병원’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국가중앙병원’이란 용어가 법인화 20주년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병원의 정체성과 역할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그러나 ‘국가중앙병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는 없었다.

조선정부에 의해 세워진 제중원이나 광제원이 대한민국이 설립주체가 되는 서울대병원의 직접적인 전신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의 법률적인 승계관계에 집착하기보다는 “근대의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각 시대의 국가중앙병원이 수행해 온 역할을 살펴보는 가운데 서울대학병원의 역사적 모습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서울대병원의 기원을 탐색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그 결과 “오늘의 서울대학교 병원의 위상이라든가 성격, 지향하는 바 등과 관련해 과거 병원들의 성격과 모습 등을 파악 함으로써 ‘정신의 계승’ 차원에서 서울대학병원의 기원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였다.”고 말했다.<sup>27)</sup> 여기서 밀하는 ‘정신의 계승’이라는 것은 즉, ‘국가중앙병원’이라는 맥락에서 제중원과 서울대병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2003년 보건복지부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립의료원을 확대, 개편하려는 계획을 실시하면서 서울대병원의 국가중앙병원 주장에 제동이 걸렸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을 확대, 발전시켜 국가중앙의료원을 설립하고, 국립대 병원을 그 산하에 두고 지역의료의 중심으로서 공공의료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옮기도

27) 『서울대학교 병원보』 221호, 1997년 10월 1일.

록 한다는 것이었다. 서울대병원은 소관부처의 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교육과 연구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서울대병원의 기존 입장인 ‘국가중앙병원’은 부각시키지 않았다. 또한 2007년 서울대병원 노조가 ‘국가중앙병원’의 정점인 대한의원 100주년 행사의 취지에 반발하면서 ‘국가중앙병원’의 논리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sup>28)</sup> 그러나 여전히 서울대병원 홈페이지나 각종 인터뷰 등에는 서울대병원의 공식적인 수식어처럼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라는 용어를 상용하고 있다.

그런데 먼저 논의해야 할 점은 서울대병원이 ‘국가중앙병원’이라고 했을 때, ‘국가중앙병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들이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의미일까?<sup>29)</sup> 아직 ‘국가중앙병원’에 관한 정확한 정의가 없지만, 단어 속에 내포된 합의만으로 보자면, ‘한 국가의 중심이 되는 병원’이라는 뜻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병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극히 제국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도 그런 의미를 부여한 적이 없고, 정의조차 되어 있지 않는 데, 스스로 ‘국가중앙병원’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지위에 걸맞은 역할을 해왔는지 자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자신들의 뿌리라고 주장하는 병원들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왔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보자면, 우리역사에서 ‘국가중앙병원’이라고 할만한 병원은 없었다. 각각의 서로 다른 병원에 요구되는 기능과 역할이 있었을 뿐이다. 대한민국에는 서울대병원도 있지만, 각 도마다 설치된 여러 국립대학병원이 있고, 그 외에도 국립의료원을 비롯하여 그 목적에 따라 국가에서 설립한 많은 의료기관이 있다. 그렇지만 이들 기관이 단지 국가에서 설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역사를 공유하는 하나의 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모든 국립의료기관의 역사가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의 역사로 수렴된다고 생각

28) 2007년 서울대병원은 자신의 뿌리가 1907년 설립된 대한의원이라고 주장하며 10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대학병원 노조는 1907년 설립된 대한의원은 일제 치하의 적십자 병원, 광제원, 의학교와 부속병원을 통합해 당대 최대 규모, 최고수준의 서양식 병원을 만들어 조선황실의 권위를 약화, 일본 통감부의 권위를 높이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설립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대한의원의 설립은 태동하고 있던 자주적인 근대의학의 싹을 말살하고, 일제통감부가 통제하는 삭민지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서울대병원의 ‘국가중앙병원’의 논리가 내부에서 조차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개념이었음을 알 수 있다.

29) 물음을 바꾸어 우리와 비슷한 체제를 가진 일본에서는 동경대학병원을 국가중앙병원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미국이나 유럽에 국가중앙병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하는 것도 지나친 오만이다. 각각의 기관은 나름대로의 개체성을 갖고 각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이민족이 지배한 단절된 역사를 가운데 두고, 하나는 왕조에서, 다른 하나는 공화국에서 설립한 기관이 단지 당대의 통치 주체가 설립한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사를 공유할 수 있는 연속된 기관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서울대병원이 제중원을 ‘정신적 차원’에서 계승했다는 견해 역시, 각 기관의 성격에 대한 오해에 바탕을 둔 잘못된 견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둘째, 서울대병원은 왜 일제의 유산을 기념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대한의원은 일제의 한국 병합과 함께 조선총독부의원으로 개명되었다. 조선총독부의원은 자신들의 연보 연혁에서 조선총독부의원의 기원으로 1899년 설립된 광제원을 지목하였고, 1907년 이후 성립한 대한의원으로 계승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사실 내부병원으로 시작한 광제원은 한방병원이지만, 1905년 광제원은 서양의학을 시술하는 일제의 식민의료기관으로 개편되었고, 1907년 대한의원으로 통폐합되었으니, 조선총독부의원이 자신들의 기원으로 광제원을 지목한 것은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고종은 1897년 국내외 정세가 안정되자 대한제국을 수립했다. 1899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 서양의학 교육기관인 의학교와 국립병원 광제원을 세웠다. 이후 의학교(부속병원 포함)와 광제원은 대한국적십자병원과 함께 1907년에 대한의원이 되었다. 대한의원이 서울대학교병원의 전신인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서울대병원 홈페이지 중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서울대병원의 역사인식은 조선총독부의원의 역사인식과 다르지 않다. 식민지의료기관인 광제원과 대한의원을 서울대병원의 전신으로 인식하고 있다. 광제원은 조선정부가 세운 한방병원이고, 일제의 식민화과정에서 서양의학을 시술하는 병원으로 전환되었다. 일제의 식민화과정에서 정점을 이룬 것은 광제원 등을 통합하여 대한의원을 건립한 것이다.

1906년 3월,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가 의료부문 현안으로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병원통합과 위생행정의 장악문제였다. 당시 조선은 을사보호조약을 통해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였으며 ‘한국 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를 통감이 간접 지배하는 방식이었다. 이토는 한국인이 장악하고 있는 병원을 재편하고 위생행정을 직접 관할하고자 했는데, 이 두 가

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해 줄 방안이 바로 대한의원 건립안이었다.

1906년 6월, 이토는 일본 육군군의총감인 사토 스스무를 초빙하여 병원 건설과 조직 재편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대한의원은 단순히 기존 병원을 통합하여 의학교육과 진료를 담당하는 기능에 그치지 않고, 보건·위생행정까지 담당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로 탄생될 예정이었다. 1906년 7월, 이토는 이 병원을 대한의원이라고 친히 명명하였고, 사토는 대한의원 창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대한의원 건립안을 추진하였다. 1907년 3월의 「대한의원 관제」에서는 대한의원이 의학교육, 위생의료, 위생행정 전반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1907년 12월의 「대한의원 관제」에서는 대한의원이 의학교육과 진료활동만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토는 초기에 대한의원을 통해 위생행정을 장악하고자 했는데, 일본인이 대한제국의 관리가 될 수 있는 합법적 제도가 보완되면서 굳이 편법적 형태를 지속시킬 필요가 없었다.

대한의원은 초지일관 일제의 식민지배와 통감의 구미에 따라 조직이 개편되었으며, 식민지배를 위한 식민 통치기구였던 셈이다. 이런 식민지 의료기관을 '중앙집중적 국가의료체계'의 정점'이라거나 선교병원인 제중원과의 계승관계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서울대병원은 조선총독부의원을 계승했는가에 관한 것이다. 제중원은 정부병원과 선교병원의 합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1894년 에비슨의 담판에 의해 선교병원으로 변화되었으며, 1904년 세브란스병원 건립으로 제중원에서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전되었고, 1957년 연희대학과 세브란스의과대학이 통합되어 연세대학교로 발전했다. 제중원은 1885년 재동 제중원에서 시작하여 1887년 구리개 제중원, 1904년 남대문밖 도동 세브란스, 1957년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 세 차례 이전하면서 장소와 이름 등이 변경되었지만, 의료진 및 교직원 구성, 시설, 병원의 정체성과 성격 등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제중원이 정부병원으로 출범했으며, 1894년 조선정부는 에비슨을 비롯한 선교부에 제중원의 운영권만을 넘겨주었는데, 이것은 곧 제중원이 운영권을 중심으로 세브란스병원으로 계승되었던 반면, 소유권은 환수되어 광제원으로 계승되고, 이것이 다시 대한의원과 서울대병원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서울대병원은 대한의원 아래로 40년 동안의 공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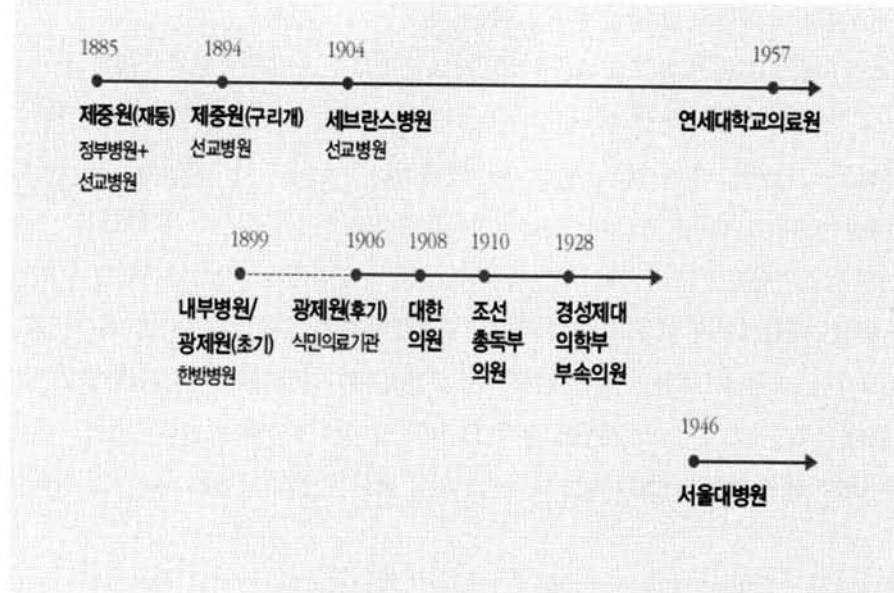


그림 1. 제중원 계승관계도: 제중원은 재동, 구리개를 거쳐 세브란스병원으로 계승·발전하였다.

1946년 설립된 서울대병원이 제중원, 광제원, 대한의원의 계승관계를 주장하게 되면, 선교병원(제중원), 한방병원(광제원 초기), 식민의료기관(광제원 후기 대한의원 조선총독부의원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의원) 등을 하나로 연결시켜 병원의 정체성에도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립대학병원이 광제원(후기) 아래 식민의료기관의 전통을 계승해야 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서울대병원은 식민지 의료기관인 광제원과 대한의원은 계승되었다고 하면서 같은 병원인 조선총독부의원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을 계승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이 제중원, 광제원, 대한의원은 계승하면서, 조선총독부의원,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등을 계승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적어도 대한의원, 조선총독부의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은 인적구성, 병원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병원의 성격까지도 이전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sup>30)</sup> 아마도 조선총독부의원과 경성

30) 경성의학전문학교(이하 경의전)는 1916년 4월 1일 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를 승계하여 개교하였다. 경의전은 별도의 부속의원을 갖고 있지 못했는데, 총독부의원 원장이 경의전 교장을 겸직하였고, 총독부의원이 사실상 부속의원 역할을 해주었다. 1928년 총독부의원이 경성제국대학(이하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편입되면서, 1928년 11월 경의전은 소격동 부속의원을 개원하였다. 1946년 8월, 국립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경성제대 의학부와 경의전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통합되고, 연건동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의원

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이라는 명칭으로는 식민지 의료기관임을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드러내고 계승관계를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이름만으로는 식민지 의료기관임을 잘 알기 어려운 광제원과 대한의원에 대해서는 그토록 계승관계를 주장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대병원은 식민통치기구인 대한의원과의 연속성을 주장하면서 같은 기관인 총독부의 원,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의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성격과 정체성이 동일한 기관 중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기관만 선택적으로 계승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인식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역사인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넷째, 서울대병원의 설립주체는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1946년 대한민국 정부가 국립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개교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다. 그런데도 서울대병원은 설립 주체가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는 무의미한 답변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설립 주체가 대한민국 정부가 되는 순간, 더 이상의 뿌리에 대한 소급은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의 주체를 국가로 규정할 경우, 조선왕조-식민지-대한민국이라는 서로 다른 시기의 주체들을 동일한 주체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히 조선왕조나 식민정부나 대한민국 정부를 모두 동일한 국가로 인정하게 되는 논리적 오류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서울대병원은 대한의원의 식민지성을 지우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조선총독부의원이나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의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계보에 식민지성이 드러날까봐. 이러한 논리적 오류가 설정되어 있는 한, 서울대병원은 제중원과 억지로 연결시키고, 광제원과 대한의원의 식민지성을 지우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끊임없이 낭비할 것이다. CMB로부터 서울대병원의 뿌리찾기를 위해서 자금을 끌어왔듯이.

## V. 나오며

김두종의 『한국의학사』는 한국의학사 연구의 고전적 연구를 대표하며, 그의 학문은 미키

---

은 서울의대 제1부속병원으로, 소격동 경의전 부속의원은 서울의대 제2부속병원으로 개편되었다.

사카에의 식민주의 의학사에 대항하는 민족주의 의학사 서술이었다. 그는 한국의학사의 선구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남긴 과제 또한 적지 않았다. 제중원 뿌리논쟁과 관련된 사항만을 거칠게 말하자면, 김두종은 제중원의 세브란스병원 승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남겼지만, 서울대병원의 정체성과 승계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즉 김두종조차도 1946년 이후 성립된 서울대병원이 식민지시기를 넘어서 뿌리주장을 하거나 심지어 일제 식민의료기관을 자신들의 모태라고 주장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김두종의 역사인식은 식민사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가 한국의학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제중원의 승계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은퇴 후에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이 자신들의 기원을 일제시기 이전으로 소급하게 되면, 자신들의 정체성에 일제 식민지하의 경력을 부정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을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1960년대까지 서울대병원의 정체성 인식에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한국 의사학계의 거목인 서울대 의대 의사학교실의 김두종 교수가 현직에 있었던 까닭에 제중원이 세브란스병원으로 계승되어 한국 서양의학의 구심적 역할을 해왔다는 인식에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제중원(선교병원), 광제원(전기-한방병원, 후기-식민지 의료기관), 대한의원(식민지 의료기관)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서울대병원이 어떤 개념을 창안한다 해도, 각각의 병원 정체성과 역사가 달라 그것을 하나로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서울대병원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구 경성제대 출신들(주근원, 홍창의, 백만기, 권이혁 등)은 자신들의 뿌리에 대한 탐색을 위해 CMB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이 기금으로 각종 기관에 자문과 조사를 맡겼다. 그 과정에서 규장각 관리실장으로 있던 서울대 사회학과 신용하 교수가 근거자료를 찾았다면 논쟁의 전면에 나서기도 했다. 이 때만 하더라도 서울대병원은 제중원이 한번도 사립화된 적이 없으며 서울대병원의 전신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1998년 주본준안의 사료검증으로 신용하 교수의 근거자료는 사실관계를 왜곡시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임이 밝혀졌다. 이즈음부터 서울대병원은 제중원이 서울대병원과 연세의료원 양쪽 모두에게로 계승될 수 있다는 모호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제중원, 광제원, 대한의원을 개념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명확한 개념 정의 없이 '국가중앙병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안해냈다.

노무현 정부시기 보건복지부는 국가의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병원의 기능을 강화하

기 위해 국립의료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중앙병원 계획을 추진하고, 서울대병원의 지휘·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이전하려 하자, 더 이상 국가중앙병원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또 다시 국가중앙병원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그동안 관방적인 자세를 유지했던 서울의대 황상익 교수가 뿌리논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황 교수는 서울대병원이 대한의원을 계승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황 교수도 제중원을 세브란스병원에 뺏길 수 없다는 서울대 의대 동문들의 압력에서 크게 자유롭지는 않았다. 황 교수 역시 제중원의 국립병원설 주장, 알렌과 선교의 학에 대한 편웨이, 자료보다는 담론을 통한 주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서울대병원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황 교수는 제중원은 서울대병원과 연세의료원 어느 쪽으로도 계승되지 않았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하면서도 황 교수가 제중원 국립병원설이나 국가중앙병원설 등의 주장에 적극적인 것을 보면, 그의 본심은 서울대 의대 동문들의 욕망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서울대병원은 제중원을 차지하기 위해 각종 논리를 충동원하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대병원이 1980년대 중반 제중원에 근거한 근대의학 100년의 상징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도발을 시작한 이래로 아마도 제중원의 기념 횟수가 늘어날수록 제중원에 대한 집착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제는 서울대병원의 대한의원 기념행사에 비판적이었던 황 교수까지 서울대병원 행사에 끌어들이고 있다. 아마도 서울대병원이 국립병원설과 국가중앙병원설을 지속하자면, 이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황 교수와의 연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는지도 모른다. 이를 토대로 서울대병원은 국립병원설과 국가중앙병원설에 기초한 주문형 연구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어: 제중원, 뿌리논쟁, 김두종,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국립병원설, 국가중앙병원설

논문 투고일: 2015.04.15. 심사 완료일: 2015.05.02. 게재 확정일: 2015.05.08.

## 참고문헌

### 1. 자료

『독립신문』, 1898년 7월 25일.

『서울대학교 병원보』 221호, 1997년 10월 1일.

『세브란쓰』, 1954년 5월 15일.

『朝鮮總督府醫院第13回年報』(1926)

『奏本存案』, 규장각 17704.

奏本 第230號, 「內部所管濟衆院贊成金 算外支出請議書」, 1906년 5월 22일.

대한의원 100주년, 제중원 122주년 기념사업추진단, 『대한의원 99주년 심포지엄』(2006. 3. 15)

「광혜원은 분명 연세의 효시－사실 입증할 주본증안 발견」, 『연세춘추』, 1998년 3월 30일.

「광혜원은 우리병원의 전신: 서울대, 연대 양의학 뿌리논쟁」, 『중앙일보』, 1981년 12월 24일, 11면.

「병원연혁에 관한 죄담: 국가중앙병원의 21세기와 뿌리 찾기」, 『서울대학교 병원보』 제221호, 1997년 10월 1일.

「우리가 제중원 嫡子,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신경전」, 『조선일보』, 2015년 4월 3일.

「일제기념 서울대병원, 도둑질한 아버지라도 제사는 지낸다?」, 『노컷뉴스』, 2007년 2월 28일.

「한국 최초의 의료기관, 제중원은 사립화되지 않았다」, 『보건신보』, 1982년 6월 7일, 5면.

김상태, 「제중원의 진실: 연세대 정종훈 교수에 답한다」, 『한국일보』, 2015년 2월 15일.

여인석·박윤재, 「황상익의 '근대의료의 풍경'을 읽고」, 『프레시안』, 2011년 1월 14일.

여인석·신규환, 「빈곤 속의 역사학과 역사학의 빈곤」, 『프레시안』, 2013년 5월 31일.

정종훈, 「서울대병원의 역사왜곡」, 『한국일보』, 2015년 2월 9일.

편사1017-216호, 「서울대병원의 질의에 대한 회신」(1982. 5. 20).

황상익, 「'근대의료의 풍경' 비평에 대한 답글」, 『프레시안』, 2011년 1월 31일.

황상익, 「역사학자의 소임은 무엇인가?」, 『프레시안』, 2013년 7월 5일.

### 2. 연구논저

『애산학보』 38호, (2012. 4) 김두종 특집호.

『연세의사학』 10-1, 대한의원 역사관련 특집호, (2007. 12).

- 『연세의사학』 16-1, (2013. 6).
- 『연세의사학』 2-1, 제중원 역사 관련 특집호, (1998. 3).
- 김두종, 『한국의학사』(탐구당, 1966), 485-500.
- 김성수, 「조선후기 사적의료의 성장과 의업에 대한 인식 전환」, 『의사학』 18-1, (2009. 6).
- 박형우 · 여인석, 「한국근대의학 도입사의 쟁점」, 『연세의사학』 2-1, (1998. 3).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연보』 1, (1964).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 편찬위원회 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1885-1978)』(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978), 간행사.
-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사』(서울대학교병원, 1993).
- 신동원, 『조선의약생활사: 환자를 중심으로 본 의료 2000년』(들녘, 2014).
- 신용하, 「광혜원과 근대의료의 출발」, 『종두의약성소 규정공포100주년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대학교의과대학, 1995.
- 여인석 · 신규환 지음, 『제중원 뿌리논쟁』(역사공간, 2015).
- 황상익, 『근대의료의 풍경』(푸른역사, 2013).

## Abstract

### The Progress and Issues in the Debate over Jejungwon Succession

Sihn Kyu-hwan

Dept. of Medical History and Institute for History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Kim Doo-jong, an important figure in the history of medicine in Korea, wrote History of Korean Medicine, which remains one of the most important works on that subject. He mentions that Jejungwon became Severance Hospital; however, he does not mention that Daehan Hospital, founded in 1908, becam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in 1946.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professors who graduated from Keijo Imperial University Medical School conspired to distort the origin of SNUH. They argued that SNUH originated from Jejungwon (“missionary hospital”), Gwangjewon (“oriental hospital”), and Daehan Hospital (“colonial hospital”). If SNUH argues that it is the successor of these three hospitals, it should give up its identity as a western hospital.

To distort the story of its origin, SNUH has created ideas such as the National Hospital theory and the National Central Hospital theory.

Key Words: Jejungwon, Jejungwon Succession, Kim Doo-jong, Severance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National Hospital theory, National Central Hospital theory